

## Myung Shim Bo Gam 명심보감



Myung Shim Bo Gam (명심보감) is translated as “Thesaurus of Things to Keep in Mind”. This historical book of Korean wisdom was written in 1305 during the Ko Ryeo dynasty (고려) by Korean Confucius scholars. This book contains 19 chapters and became the historical words of wisdom containing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명심보감(明心寶鑑)은 고려 시대 충렬왕 때 민부상서(民部尙書)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지낸 추적(秋適)이 1305년에 중국 고전에서 선현들의 금언(金言)·명구(名句)를 엮어서 저작했다.

명심보감은 19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불선의 복합된 사상을 망라하여 편찬한 책이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학 입문용 교재로 손꼽히는 『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고전이다. 단순히 쉬운 문장들로 구성되어 한문 학습을 돕는 역할만 했다면 그 위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간결한 문장 안에 담긴 선인들의 보배로운 말과 글은 인격 수양을 돕고, 나아가 인생의 참언으로 두고두고 숙독되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현인들의 지혜는 유교·불교·도교 등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어 전통적인 동양 사상의 진면목을 잘 보여준다. 어느 한편의 사상에 치우치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인간 본연의 착한 심성을 강조하며,知足(知足)과 겸양의 덕성을 가져야 한다는 명언은 경세(經世)를 위한 수양서이자 제세에 필요한 교훈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Thesaurus of Things to Keep in Mind”

To view the detail, click the following;

[http://omahayoo.org/1FG\\_MyungSimBoGam.htm](http://omahayoo.org/1FG_MyungSimBoGam.htm)

